치과로 군대 면제가 가능할까? 치과 질환에 따른 병역신체등급 판정의 경향: 10년간의 분석

목동예치과병원
장 훈

배경 및 목적
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수련을 마친 후,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의사로서 3년간 군복무 하였습니다. 해당 기간 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질환이 군 입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향후 병무용 진단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.

재료 및 방법
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약 290만 명 중, 치과 질환으로 인해 4급 이상(보충역, 전시근로역, 면제) 판정을 받은 396,88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. 분석 대상은 13개의 대부령과 각 세부 부령별로 분류된 4급, 5급, 6급 판정 인원수이며, 이들의 연도별 변화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.

결과
4급 이상 판정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구순구개열, 저작기능 장애, 부정교합, 구강 내 종양, 턱관절 질환 순이었습니다. 10년간 치과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인원은 총 247명이었으며, 이 중 구순구개열 145명, 저작기능 장애 41명, 구강 내 악성종양 27명, 양성종양 11명, 악골 결손 8명, 부정교합 7명, 턱관절 질환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.

결론
10년간의 분석을 통해, 치과 질환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군 복무의 수행 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. 특히 구순구개열은 면제 및 보충역 판정의 주된 원인이었으며, 병무용 진단서 작성 시 진단명뿐 아니라 기능적 영향에 대한 세부 기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.